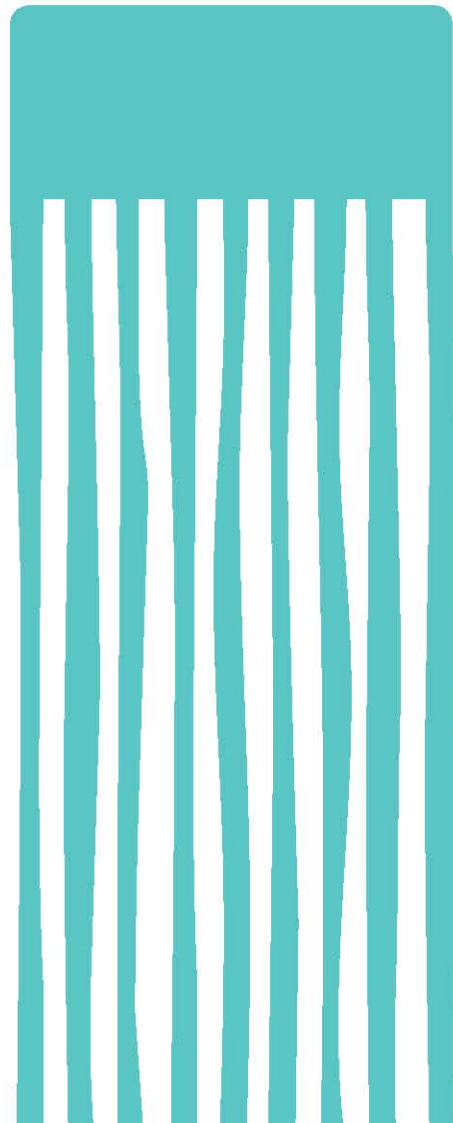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D



정답 및 해설

미래엔

신유식

문학의 가치

(1) 작품을 감상하는 눈 / (2) 가치의 발견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1~025쪽

- 01 (1) ○ (2) ○ (3) ○ (4) ○ (5) ○ (6) ○ (7) × 02 ②, ③
- 03 ④ 04 ㉠: 경계, ㉡: 교감
- 05 (1) ○ (2) ○ (3) × (4) ○ (5) ○ (6) ○ 06 ④
- 07 ① 08 ㉢: 자식, ㉣: 그리움
- 09 (1) ○ (2) ○ (3) ○ (4) ○ (5) ○ (6) ○ (7) × 10 ④
- 11 (1) 술독 (2) 밥, 묵은 밥, 열매 (3) 금줄
- 12 ㉢: 아생, ㉣: 본능
- 13 (1) ○ (2) ○ (3) ○ (4) ○ (5) × (6) ○ 14 ④
- 15 ⑤ 16 진화
- 17 (1) ○ (2) ○ (3) × (4) ○ (5) ○ 18 ④
- 19 다람쥐 ①, ⑥, ⑧, ⑨ / 고양이: ③, ⑤, ⑥, ⑩
- 20 다람쥐가 고양이를 자신의 어미라고 생각하여 자신 역시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1 (1) ○ (2) × (3) ○ (4) ○ (5) ○ (6) ○
- 22 ④ 23 ④
- 24 다람쥐가 본성을 되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 25 (1) ○ (2) ○ (3) ○ (4) ○ (5) × (6) ○ 26 ④
- 27 ⑤ 28 애원동물
- 29 (1) ○ (2) ○ (3) × (4) ○ (5) ○ 30 ①
- 31 (1) 교장 (2) 면장 (3) 조카
- 32 아생 동물들은 자신의 본성을 지니고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 01 (7) ‘한 달쯤 지났을까, ~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다.’를 통해 다람쥐가 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매일 찾아와 먹이를 얻어먹곤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②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은 둘째인 나다.’에 서술자가 ‘나’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첫 문장에서 ‘1994년 3월’이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감을 느끼게 한다.
오답 해설 ① 인물 간의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극 갈래이다. ⑤ 서술자인 ‘나’의 경험이 아닌 어머니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03 환감을 넘긴 어머니는 점점 농사를 줄이는 중이지만, 자식들에게 부쳐 줄 농사는 최소한으로 지으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생계에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고구마와 감자를 나눠 주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어머니가 맨 처음 다람쥐를 만난 것은 1994년 3월이라고 하였다. ③ 어머니가 옆에 가도 다람쥐가 도망치지 않은 것과, 한 달쯤 뒤에 다람쥐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어머니가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05 (3) ‘밥그릇’과 ‘수저’는 다람쥐가 아닌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 06 어머니는 다람쥐가 보이지 않자 다른 동물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지만 다람쥐를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다람쥐를 하찮은 동물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막내의 밥그릇을 다람쥐에게 준다. ②, ③ 처음에 어머니는 다람쥐를 쓰다듬다가 다람쥐에게 물릴까 봐 놀라서 일어서지만 다람쥐가 자신을 전혀 경계하지 않자 다람쥐를 경계한 것을 반성한다. 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07 어머니는 다람쥐가 찾아오자 반기워서 쓰다듬는다. 그러다가 다람쥐가 물지 않을까 놀라 일어난다. 그러나 전혀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다람쥐를 보고 반성하며 미안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다람쥐가 보이지 않자 다른 동물들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닐까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 09 (7) ㉢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야생 동물이 먹이를 구하는 본능을 잃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와 다람쥐 모두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에서 어머니는 다람쥐에 대한 걱정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에서 어머니는 다람쥐를 본 안도감으로 인해 울었다.
- 13 (5) 어머니는 신을 원망하기는 하지만, 다람쥐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한다.
- 14 ㉤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어머니가 다람쥐 새끼들이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를 통해, 처음에는 큰아들, 작은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오려고 했지만 결국 열흘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의 ‘죽었구나. 아, 내 실수야.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갔어야 하는데…….’와 ‘어머니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가슴을 쳤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5 ㉠은 어머니의 서울 나들이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일로, 어머니가 다람쥐를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원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④ ㉠은 어미 다람쥐의 죽음으로, 다람쥐가 아생의 본능을 잃게 된 후 생긴 불행에 해당한다.
- 17 (3) 어머니는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키우는 것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 18 어머니는 어미 다람쥐의 죽음으로 남겨진 다람쥐 새끼들이 안타까워 신을 원망하다가, 다람쥐의 친적인 고양이가 어미 잃은 다람쥐 새끼들을 돌본 것을 발견하고는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신을 원망한 이유에 해당한다. ② 고양이가 자기의 새끼들과 함께 다람쥐 새끼들을 돌보았을 뿐, 고양이 새끼들이 다람쥐 새끼들을 보호한 것은 아니다. ③ 어머니가 다람쥐 새끼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다람쥐 새끼들이 아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습성을 습득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21 (2) ‘사람이 다람쥐의 생활을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 22 야생 암다람쥐는 수다람쥐에게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 몸이 지방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지방의 양을 늘리기 위해 육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23 어머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다람쥐가 자신을 고양이로 생각하여 고양이만 보면 달래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의 습성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야생 다람쥐를 술독에 함께 가둬 놓은 것이다.

24 어머니는 과거에 자신이 다람쥐를 위한다는 생각에 먹이를 구해 주었던 일 때문에 오히려 다람쥐가 본연의 습성을 잃고 천적에게 죽임을 당한 점을 깨닫고 후회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다람쥐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먹이를 주지 않은 것이다.

25 (5) 어머니는 다람쥐가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26 어머니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열두 마리의 다람쥐를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그날도 어머니 옆에서 재롱을 부리던 수다람쥐가 갑자기 즐기 시작하였다. ~ 겨울잠 잘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야생성을 회복한 수다람쥐는 술독에 식량을 충분히 모아 두었으며,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다. ③ '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 고통을 참고 이겨 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겨울잠에 든 다람쥐들은 사흘에 한 번씩 깨어난다. ~ 그러고는 다시 잠을 잔다.'에서 알 수 있다.

27 어머니는 과거에 자신이 다람쥐를 위한다는 생각에 먹이를 구해 주었다가 오히려 다람쥐가 본연의 습성을 잃고 결국 천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고양이의 보살핌을 받은 다람쥐가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하여 목숨을 잃은 것을 경험한 후 다람쥐의 본성을 살려 주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⑤는 어머니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 고통을 참고 이겨 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어머니는 다람쥐의 야생성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간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자연의 이치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9 (3) 교장이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다람쥐를 교육용으로 기증해 달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절한다.

30 사람들은 돼지나 뱀, 원숭이 등을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지만, 동물들은 무서운 천적들이 도사린 숲속일지라도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고 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26쪽

03 어머니는 주인공이며,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다.

05 다람쥐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08 어머니가 먹이를 구해다 주자 암컷 다람쥐는 야생의 습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10 어머니는 고양이가 나타나 어미 잃은 다람쥐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겨 간섭하지 않았다.

11 다람쥐와 고양이의 생활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새끼들은 고양이의 습성을 익힘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13 어머니는 본연의 습성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맞춰 길들여지고 있는 다람쥐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14 어머니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초등학교 교장에게도 다람쥐를 주지 않았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28~033쪽

- 1 ②
- 2 ④
- 3 ①
- 4 ③
- 5 본능
- 6 ②
- 7 ⑤
- 8 ③

9 수다람쥐에게 야생의 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10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 동물의 습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11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을 겪어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힘든 시절을 겪어야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통을 참고 이겨 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소설로,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한다.

오답 해설 ①, ③ 소설은 허구적인 문학이다. 작가의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하며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하는 것은 수필이다. ④ 서정적 자아의 정서와 감정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시이다. 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극이다.

2 어머니는 처음부터 집을 오래 비울 의도가 없었으며, 다람쥐의 야생성을 믿고 있지도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에 의존하던 다람쥐는 야생성을 잃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② 노루같이 약한 동물의 새끼들은 강하고 지라는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다람쥐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거나 뛰어다닐 수 없다. ③ 어머니는 시골집으로 돌아온 뒤 어미 없이 남겨진 다람쥐 새끼들을 발견한 후 안타까워하고 있다.

3 [A]에서 어머니는 어미 다람쥐의 죽음으로 남겨진 다람쥐 새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신을 원망했지만, [B]에서 다람쥐의 천적인 고양이가 어미 잃은 다람쥐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4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기쁨으로써 다람쥐들은 고양이의 습성을 익히며 자라서 자신을 고양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⑤은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기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 다람쥐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6 어머니는 우연히 찾아온 다람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도와주고 그 다람쥐는 새끼를 낳는다.(ㄴ)-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 본성을 잃은 다람쥐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가 부엉이에게 잡아먹혀 죽는다.(ㄷ)-어미 잃은 다람쥐 새끼들을 고양이가 키우고, 그 고양이가 키운 다람쥐 새끼들은 자신들이 고양이라고 생각한다.(ㄹ)-어머니는 수다람쥐에게 다람쥐로서의 본성을 가르치기 위해 야생 암다람쥐와 함께 지내게 한다.(ㄱ)-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애완동물로서 다람쥐를 원하지만,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 동물로 지내기를 바란다.(ㄷ)

7 암다람쥐를 만난 이후에도 수다람쥐는 어머니를 잘 따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수다람쥐가 야생의 습성을 잃는 것을 경계했다. 암다람쥐를 만난 후 수다람쥐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와 같이 어머니가 다람쥐 부부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야생 암다람쥐는 수놈에게 하나씩 교육을 시켰다. ~ 그들이 고양이 같은 육식 동물보다 더 무섭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에게 고양이가 적이라는 말은 소용 없었다. ~ 개나 족제비, 부엉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오직 고양이만은 철석같이 믿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어머니는 그들의 식량 창고에다 막대기를 꽂아서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질 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뒤에 나오는 어머니의 말("애야, 나가서 네 짝이랑 자거라. ~ 사랑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져.")을 봤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다람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암다람쥐는 다람쥐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생존 방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② 다람쥐에게 밥을 주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④ 다람쥐에게 천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것은 야생 암다람쥐이다. ⑤ 이어지는 어머니의 행동과 관련이 없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34~043쪽

- 1 ③ 2 ⑤
- 3 다람쥐에게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 4 ⑤ 5 ⑤ 6 ② 7 ⑤ 8 새끼
- 9 ④ 10 ⑤ 11 ⑤
- 12 ㉠: 야생 동물, ㉡: 애완동물
- 13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 14 ⑤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17 해설 참고

1 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서둘러 떠나보내고 혼자 살며 외로움을 느끼던 중(ㄷ), 다람쥐를 만나 먹이를 주며 보살피게 된다(ㄴ).

오답 해설 ㄱ. 어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람쥐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다. ㄷ. 서술자는 어머니가 아닌 '나'이다.

2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인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독지정(紙積之情): 어미 소가 송아지를 핏는 사랑이란 뜻으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지극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음을 이르는 말 ④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4 ㄴ과 ㄹ은 문학 작품을 그 자체로만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ㄱ. 효용론적 관점 ㄷ. 표현론적 관점

5 이 글의 '다람쥐'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존재이고, <보기>의 '피꼬리'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존재이다.

6 ①은 '질서, 제도, 체제 따위가 파괴되다.'라는 뜻이다. ②의 '무너지다'도 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쌓여 있거나 서 있는 것이 허물어져 내려앉다.'의 뜻이다. ③ '슬픈 일 따위를 당하여 감정이 안정을 잃고 한꺼번에 내려앉다.'의 뜻이다. ④ '운동 경기 따위에서 지다.'의 뜻이다. ⑤ '몸이 힘을 잃고 쓰러지거나 밑바닥으로 내려앉다.'의 뜻이다.

7 ①에는 다람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한동안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다람쥐가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애증은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어머니는 다람쥐에 대해 애정은 있으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

9 이 글의 어머니는 다람쥐를 배려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그 본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보기>의 사람은 길을 들여 부리기 위한 목적에서 말을 다루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국회 의원, 군 의원, 조항장, 면장과 <보기>의 사람은 모두 동물의 본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동물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인간은 욕심 때문에 다람쥐를 철창 안에서 키우고, <보기>의 사람은 길을 들여 부릴 욕심에 말을 잡아들였다. ③ 이 글에서 어머니와 다람쥐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람쥐를 키우고 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보기>에서 말이 명성을 얻은 것은 말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결과이다. ⑤ 이 글의 철창 안 다람쥐와 <보기>의 본성을 빼앗긴 말은 모두 본연의 습성을 지키지 못한 채 인간에게 길들여졌다.

10 ①에는 야생 동물인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길들이고 싶어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다람쥐의 생태적인 습성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1 ⑥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 인간들이 욕심에 의해 동물들을 길들이는 모습과 관련된다.

14 ①은 동물 고유의 습성을 무시한 채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의 욕심에 맞추어 길들이려 한다. 따라서 ①의 관점에서는, <보기>의 상황에서 고양이를 집에 데려가 키우며 길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①이 아닌 어머니의 입장이다. ②~④ ①의 관점과는 관련이 없다.

15 모범 답안

이	글	의	가	치	는	,	다	양	한	생	태	계	의	
가	치	를	존	중	하	는	모	습	이	야	말	로	앞	으로
우	리	인	간	이	나	아	가	야	할	살	이	라	는	깨
달	음	을	준	다	는	것	이	다	.	그	근	거	로	는
서	로	공	존	할	수	있	는	생	태	계	의	질	서	를
존	중	하	는	것	이	인	간	과	동	물	의	공	존	을
가	능	하	도	록	만	든	다	는	것	을	들	수	있	다

16 모범 답안

어	머	니	는	다	람	쥐	가	자	신	에	게	해	를	끼	
칠	까	봐	걱	정	하	고	경	계	했	지	만	,	다	람	쥐
는	어	머	니	를	전	혀	경	계	하	지	않	았	기	때	
문	이	다	.												

자	아	등	자	본	지				
신	생	물	신	성	니				
의	은	은	의	을	고				
힘	로	로	는	것	가				
이	다	다	는	이	장				
다	.	.	는	동	에				
인	중	심	적	사	고				
간	를	비	판	하	고				

9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세종어제훈민정음 / 용비어천가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49~051쪽

- 01 (1) ○ (2) ○ (3) ○ (4) ○ (5) ○ (6) × 02 ㉓
- 03 ㉔ 04 ㉑, ㉒, ㉓, ㉔, ㉕
- 05 (1) ○ (2) ○ (3) ○ (4) × (5) ○ (6) ○ (7) ○ 06 ㉔
- 07 ㉕ 08 ㉑: 정당성, ㉒: 영원(영원성)

- 01 (6) 비교 부사격 조사는 ‘에’로 현대 국어(중국어 → 중국어)와는 다르게 쓰이고 있지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㉑ 서르, 爲·왕·흐·야).
- 02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3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자주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이다. ‘文文字·중·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씩’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한자와 음운, 어휘, 문법 체계가 달라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애국 정신과는 관련이 없다.
- 04 ㉑: ‘·쁘·들’, ‘·뿌·페’ 등과 같이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㉒: ‘서르’, ‘爲·왕·흐·야’처럼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㉓: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 ㅁ, ㅂ, ㅅ, ㅈ’ 등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㉑: 중세 국어에서는 ‘말ㅅ·미’, ‘·노·미’, ‘·쁘·들’처럼 이어 적기를 하였다. ㉒: ‘·스·를’처럼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 05 (4) 조선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는 것은 제2장이다. 제1장에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 06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에, 세종의 명에 의해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즉, 이 글은 훈민정음 창제에 때맞추어 그 실용성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고자 창제된 것으로,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번성한 왕조를 ‘불·휘기·폰남·곤(기초가 튼튼한 나라)’, ‘:식·미기·폰·므·른(유서가 깊은 나라)’과 같은 자연물에 비유하였다. ㉓, ㉕ 제징에서 중국의 성인들의 업적과 조선의 여섯 왕의 업적이 같다고 하면서 여섯 선조가 중국의 제왕들처럼 하늘의 명을 받았음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에 동북 아시아의 핵심 권력이었던 중국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07 ‘기·폰’, ‘·브·래’, ‘:도·코’, ‘:식·미’, ‘·므·른’ 등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브·래’, ‘:꺄·래’, ‘·바·래’ 등을 통해 모음 조화가 잘 지

켜졌음을 알 수 있다. ㉔ ‘니르·샤’, ‘·이시·니’, ‘·히시·니’ 등을 통해 주제 높임 선어말 어미 ‘-시-/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8 <용비어천가>는 목적성이 강한 작품으로,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창작되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52쪽

- 02 중세 국어의 한자음은 중국 원음에 가깝게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했다.
- 03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
- 05 ‘ㅇ, ㅈ, ㅊ, ㅋ’ 등은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멸되었다.
- 08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음’이며, 나중에 ‘-기’가 추가되었다.
- 10 ‘어·린’과 ‘어엿·비’는 모두 의미가 이동된 단어이다.
- 13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모두 방점이 사용되었다.
- 14 제1장에서는 세종의 여섯 조상이 하늘의 명을 따랐던 중국의 제왕들과 비슷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2장에서는 중국 왕의 업적을 다루고 있지 않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54~059쪽

- | | | | | |
|--|------|------|--------|------|
| 1 ㉔ | 2 ㉔ | 3 ㉔ | 4 ㉔ | 5 ㉔ |
| 6 :히 - 상성 / ·여 - 거성 | 7 ㉔ | 8 ㉔ | 9 ㉔ | |
| 10 ㉔ | | | | |
| 11 현대 국어는 끊어 적기를 하지만 중세 국어는 이어 적기를 했다. | | | | |
| 12 ㉔ | 13 ㉔ | 14 ㉔ | 15 스뫼디 | 16 ㅂ |

- 1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과 함께 성조도 사라졌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의 ‘·스·를’은 원순 모음화에 의해 ‘스를’로 바뀌었다. ② 중세 국어의 ‘·쁘·들’은 현대 국어의 ‘뜻을’로, 중세 국어의 ‘·뿌·메’는 현대 국어의 ‘씀에(쓰는 데)’로 바뀌었다. ③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ㅎ, ㅈ, ㅇ, ㅋ’가 사용되었다. ④ 두음 법칙에 의해 중세 국어의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의 ‘이르고자’로, 중세 국어의 ‘너·겨’는 현대 국어의 ‘여겨’로 바뀌었다.
- 2 ‘놈’은 이 글에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
- 3 ㉔은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④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4 ㉔에는 ‘의존 명사(바) + 주격 조사(1)’인 ‘배’가 들어가야 한다.

5 ㉔은 ‘따름이다’라는 뜻으로, 한글 창제를 반대하던 신하들의 우려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㉔: 중세 국어의 ‘어엿·비’는 ‘가엿게’의 뜻이다. ㉔: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표현이다.

7 ‘ㅇ’은 쌍이음으로,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쓰던 옛 글자이다. 어두 자음군이 쓰인 단어는 ‘·쁘·들’, ‘·뿌·메’ 등이다.

8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도 지배층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으로 인해 한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ㅎ’은 목구멍소리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한 글자이다. 또한 이 글을 통해 ‘ㅎ’이 ‘ㅎ’과 구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나라+사’이므로 ‘사’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㉔: ‘말씀+이’를 ‘말씀미’와 같이 이어 적고 있다. ㉔: ‘어리석은’의 의미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단어이다. ㉔: ‘바+1’과 같이 주격 조사로 ‘1’가 사용되었다.

10 ㉔은 ‘통하지’의 뜻이다.

12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에서 두음 법칙이 일어나 ‘이르고자’가 된다.

13 ‘춍밭’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라져 ‘춍밭’이 된 후 모음 ‘·’가 없어지면서 ‘춍밭’로 표기가 정착된 것이다.

14 ‘불·휘’는 ‘뿌리가’의 뜻으로 ‘1’ 계열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예이다.

오답 해설 ㉔: ‘남·근’은 ‘남+근’으로, ‘ㅇ’은 체언이 양성 모음일 때 사용하던 조사이다. 따라서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㉔: 8중성법은 중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 것인데, ㉔은 받침에 ‘ㅈ’을 쓴 것으로 보아 8중성법 대신 중성부용초성(중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함)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㉔: 현대 국어의 ‘쫄고’에 해당하므로, ‘1’ 계열 모음 앞에 오는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㉔: 현대 국어의 ‘물은’에 해당하므로, 입술소리 ‘ㅁ, ㅂ, ㅍ’ 뒤에서 ‘ㄱ’이 ‘ㄴ’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 8중성법에 따라 ‘스뫼디’의 ‘뫼’의 받침 ‘ㅈ’을 ‘ㅅ’으로 바꾸고, 구개음화가 사용되지 않은 ‘스뫼디’로 표기해야 한다.



- 1 ① 2 ④ 3 ⑤ 4 ③
 5 ㉠: 자주정신, ㉡: 애민 정신, ㉢: 창조 정신, ㉣: 실용 정신
 6 ④ 7 ② 8 ① 9 ① 10 애민 정신
 11 ⑤ 12 ③ 13 ④ 14 ③ 15 해설 참고

1 (가)는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설명문적 성격이 강하고, (나)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적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오답 해설 ③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세종 대왕께서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④ (나)의 제1장의 '古聖(고성)은 옛날의 성인, 즉 중국 역대의 제왕을 일컫는 말'이므로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제2장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뿌리가 깊은 나무에, 유서가 깊은 나라를 샘이 깊은 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함축적 의미에 집중하여 이해해야 한다. ⑤ 제1장에서는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을 '海東(해동) 六龍(육룡)'에 비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뿌리가 깊은 나무에, 유서가 깊은 나라를 샘이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제2장에서는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 어휘를 구사하였다.

2 '中'과 같이 한자를 먼저 적고 오른쪽에 한자음을 적었다(㉠). 또한 당시에는 한자음을 중국 한자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사용했으며(㉡), '字·중'과 같이 음절에 초·중·종성을 반드시 갖춰서 표기했다(㉢).

오답 해설 나. 음절에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ㅇ(옛이음)'이 아닌 'ㅇ'을 적었다.

3 중세 국어의 '스·물'은 입술소리 'ㅍ, ㅂ, ㅃ' 뒤에서 'ㄷ'가 'ㄴ'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의해 현대 국어에서 '스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④ '어·린'과 '어엿·비'는 의미 이동의 예이다. ② 'ㅍ·ㅃ·들'의 '을'은 중세 국어에서도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③ '노·미'의 '놈'은 의미 축소 의 예이다.

4 (나)가 창작되었을 당시에는 '시·미(시 + 미)'와 같이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느·르·새(늘--+~+~사)'와 같이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② '바·르·래(바+~+~애)'는 '바다에'의 뜻으로, '애'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느·르·새(늘--+~+~사)'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가, '天福(천복)·이시·니'와 '同符(동부)·하시·니'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⑤ '아·나·뉘·씨'와 '그·출·씨'에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르'가 사용되었다.

6 ㉠: '몽'의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봉몽'은 모음으로 끝난 단어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로 'ㅣ'를 써야 한다. ㉡: '말'의 'ㅍ'는 양성 모음이므로 목적격 조사로 '을'을 써야 한다. ㉢: '침'은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주격 조사로 '이'를 써야 한다.

7 제시된 문장은 '첫소리(초성)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써라. 나중 소리(중성)도 마찬가지로이다.'라는 뜻이다. 즉, 초성을 나란히 쓰는 병서법에 대한 설명이다. 'ㅍ·ㅃ·들'의 'ㄷ'은 어두 자음군으로,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를 사용한 것이다.

8 '말씀'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말'을 뜻했으나 현재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므로 범위가 줄어든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9 등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은, 우리말과 한자가 달라서 우리말을 한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 관련된 내용이다.

10 <보기>에서는 세종 대왕이 백성을 위하여 직접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낸 사실을 말하고 있다.

11 악장은 훈민정음의 가치가 아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12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음보율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제2장에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며,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을 '海東(해동) 六龍(육룡)'에,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뿌리가 깊은 나무에, 유서가 깊은 나라를 샘이 깊은 물에 비유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을 초월적 존재인 '六龍(육룡)'에 비유하고 있다. ④ 세종의 여섯 조상을 중국의 제왕들과 견주어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꽃, 열매, 내, 바다' 등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조선의 영원을 기원하고 있다.

13 이 글은 새 왕조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후대 왕들에게 권계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전달 동기가 강하다. ④는 노름과 소송을 삼가라는 내용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따라서 이 역시 전달 동기가 강하다.

오답 해설 ① 임에 대한 예찬 ② 자연 친화 ③ 화랑인 기파랑 예찬 ⑤ 금강산 봉우리인 망고대와 혈망봉 예찬 ⇒ 모두 작가의 사고나 정서를 표출하는 표현 동기가 강한 작품이다.

14 ㉠은 '열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 '애'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애'와 문법적 기능이 같다.

15 모범 답안

	<	용	비	어	천	가	>	는	훈	민	정	음	으	로	된	최
초	의	작	품	인	동	시	에	한	국	문	학	의	독	특		
한	갈	래	인	악	장	의	대	표	작	품	이	다	.			

(2)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69~073쪽

- 01 (1) ○ (2) ○ (3) × (4) ○ (5) ○ (6) ○ 02 ⑤
 03 ⑤ 04 ④
 05 (1) ○ (2) ○ (3) ○ (4) ○ (5) × (6) ○ (7) ○ 06 ②
 07 ② 08 전문어
 09 (1) ○ (2) ○ (3) ○ (4) ○ (5) × (6) ○ 10 ①
 11 ④ 12 ㉠: 국가, ㉡: 한글

01 (3) ①에서 언어 공동체는 가족, 지역, 세대, 성별 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02 ①에서 언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뿐, 각 구성원별로 담화 관습이 다르다고 하지는 않았다.

03 ②에 드러난 선인들의 말에 대한 관점은 바로 말을 삼가라는 것이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속담이다. 이는 말을 삼가라는 선인들의 말 문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② 말로는 못 할 말이 없다: 실제 행동이나 책임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말은 무슨 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 ③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짚은 할수록 준다: 말은 퍼질수록 보태어지고, 물건은 옮겨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 ④ 말은 해야 맛이 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미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04 ①은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관습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비가 오니 빨리 빨래를 걸으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손자를 자신이 업어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② 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빨리 빨래를 걸으라는 자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돌려 표현하는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05 (5)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문어를 쉬운 말로 풀어써 사용하는 것이 좋다.

06 경준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를 사용함으로써 보호자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7 사람은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의사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동아리 모임, 가족, 친구를 만날 때에는 또 다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의사 집단 내에서 의사들끼리 의사소통할 때는 의학 전문 용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전문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일종의 권위 부여와 유지 기능을 한다. ⑤ ①에서 경준은 다른 언어 공동체 사람인 보호자에게 전문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언어 공동체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9 (5)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이유로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문화·외교·스포츠 분야의 한국인 활동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임을 들고 있다.

10 '저녁'과 '모듬'은 고유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국어에서 외래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기 가능한 한 고유어로 바꿔 쓰도록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⑤ 우리말이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11 ㉢에서 친구 1은 괜찮다는 뜻으로 '괜찮'의 첫 자음을 사용하여 'ㄱ'이라고 했지만, 현우는 'ㄱ'을 '강추(강력 추천)'로 이해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나 은어, 줄임말 등은 가상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는 세대나 집단과 대화할 때 소통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74쪽

0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내용과 형식은 물론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모두 다르다.

06 '돌려 말하기'는 그대로 표현하면 감정을 해치거나 좋지 못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생각을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08 '뺑'은 고유어가 아닌 외래어이다.

10 외래어는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76~081쪽

- 1 ① 2 ④ 3 ③ 4 ③ 5 ④
 6 ③ 7 ④ 8 일흔 살
 9 비에 빨래가 젖지 않도록 며느리에게 빨래를 걷게 하려는 의도로, 명령의 의도를 완곡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능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10 ③ 11 ③ 12 ② 13 ㉠: 고유어, ㉡: 외래어
 14 그룹 → 단체 / 채팅 → 대화 / 메시지 → 알람(말)

1 (나)의 의사 집단의 담화 관습은 의사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의사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할 때 권위가 유지된다.

오답 해설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구처럼 사용하는 어휘(④), 의미가 정밀하고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③). 전문어는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②), 일반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풀어써 사용하는 것이 좋다(⑤).

2 연령, 세대에 따라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차이가 있다.

오답 해설 ① 학생들의 대화를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것은 개인주의적 성향과는 관련이 없다. ② 학생들과 할머니는 모두 성별이 여성이므로, 성별로 인한 담화 관습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③ 학생들의 대화가 할머니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뽕미'는 '뽕임?'을 빠르게 쓰려다 오타가 난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⑤ 학생들이 속한 언어 공동체와 할머니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관심사가 상이한 것은 맞지만, 언어의 형식이 다른 것은 아니다.

3 (나)의 보호자는 일반인이므로 의사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보기 1>에 참여한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답 해설 ④ (나)에서 경준은 보호자가 알기 어려운 의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보호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였지만, <보기 2>에서 의사 1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

4 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르.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가.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한다고 하였다. 마. 말을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바.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 '십벌지목(十伐之木)'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음을 이르는 말로, 말과 관련된 한자 성어가 아니다. 또한 글의 맥락과도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② 화중구생(稱從口生): 원래 화(禍)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이르는 말 ③ 도청도설(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⑤ 실은 쓰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좁는다: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

6 첫 번째와 세 번째 속담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속담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침묵이 더 낫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7 ④는 직설적 말하기로, 발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통찰을 통해 그 의도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우회적 말하기로 돌려 말하고 있으므로,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하여 통찰을 통해 그 의도를 해석해야 한다.

8 '고희(古稀)'는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일흔 살을 이르는 말이다.

10 ③은 잔디를 밟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완곡 어법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된다. ⑤ '아파요'는 ③의 '아파요'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자신의 마음이 슬픈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11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을 듣고 과찬의 말씀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12 <보기>에서는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삼갈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는 '말이 많으면 군말을 많이 하게 되므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말'이므로 <보기>와 그 관점이 가장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③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말 ④ 말이란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아주 다르게 들린다는 말 ⑤ 말이 꼬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 온다: 상대방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주게 된다는 말

본문 082~089쪽

소단원 심화 평가

1 ③	2 ①	3 ⑤		
4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지만,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을 이르는 말로 아직 국어로서 지위를 얻지 못한 말이다.				
5 ②	6 ①	7 ③	8 ②	9 ①
10 ②	11 ③	12 ⑤	13 ②	
14 (1) 한국어를 아끼지 않고 줄임말, 이모티콘, 외계어 등을 사용하며 국어를 파괴하고 있다. (2)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다. 15 해설 참고				
16 ③				
17 속담에서 지칭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게 된다.				
18 <보기>의 표현의 공통점은 과도하게 줄임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언어 공동체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19 해설 참고 20 해설 참고				

1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는 말 /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말 ㉢: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 ㉥: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 ㉠, ㉡, ㉢, ㉣: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며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 말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나무, 머리, 손'이다.
오답 해설 '아르바이트, 카페, 담배, 빅타이'는 외래어이고, '부모, 백분율'은 한자어이다.

3 '에어 서클레이터'를 '공기 순환기'로 표현한 것은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로 다듬은 예이다.

5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고유어를 사라지게 하거나, 외국 의 문화와 문명에 종속되거나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잘못된 발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과 고유어의 사용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관계가 없다. ④ 고유어 대신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보기>에서는 현학적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겸양의 말하기와도 관련이 없다.

6 '간과하다'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라는 뜻이므로, '간과하는'은 '대강 보아 넘기는'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시의적절하다: 그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에 아주 알맞다. ③ 타인: 다른 사람 / 눈길: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④ 선택하다: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다. ⑤ 경시하다: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7 ㉠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된 속담으로 개선이 필요한 표현이다. 그런데 '상인'은 '장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촌스럽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시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인식이 깔려 있으므로 '세련되지 못하다'로 고친다. ② 여의사: 특정 집단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의사'로 고친다. ④ 봉급쟁이: 봉급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봉급생활자'로 고친다. ⑤ 혼혈아: 부정적·차별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로 고친다.

8 <보기>의 아버지는 '여자'라는 성별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에서도 '남자'라는 성별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폭력적인 표현이다. ③ '잡상인'은 특정 직업을 차별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④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⑤ 서울을 가장 우위에 두고 강원도를 차별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9 민혁은 '긱긱'을 '괜찮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반면, 현우는 '강추(강력 추천)'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자음만 쓴 말로 인해 의사소통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신박하다'는 게임에서 비롯된 은어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④ 이모티콘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할'이 소리 나는 대로 쓴 말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0 '백살공주'가 말한 '남'은 '너무', '귀염'은 '귀여움', '심쿵'은 '심장이 쿵'을 줄인 말이다. '낄끼빠빠'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각'은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이나 분위기를 이르는 신조어에 해당한다. ③ '반박 불가'는 '반박 불가'라는 뜻으로 자음만 쓴 언어 표현에 해당한다. ④ '맹맹이'는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멍멍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로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현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신조어이다.

11 <보기>의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주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이러한 표현은 특정 신체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 표현에 해당한다.

12 (다)를 통해 다른 나라에 한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보다 언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말라이다 주에 보급된 교과서에서 비를 '우파', 바람을 '이

루' 등으로 한글로 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한글이 해외에 보급되는 것을 통해 과학적인 표음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했다. ④ (가)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며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둔다고 했다. ③ (가)에서 한글의 과학성·편리성·독창성·보편성·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서도 과학적인 표음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13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말들을 새로운 형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15 모범 답안

< 보기 > 에서	외래어를	'우리말에서
속아	내야 할	말의
것으로	볼 때,	< 보기 > 의
외래어를	순화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다.

16 '청소부'가 '환경미화원'으로 바뀐 것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청소부'가 배타적인 표현이어서 고친 것이 아니다.

19 모범 답안

< 보기 > 의	표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차별적인	표현에
이러한	표현을	바르게	고치면
언제	오셨어요?	'정도로	표현하는
이	적절하다.		

20 모범 답안

< 보기 > 에서	는	시리얼	박스의	디자인
중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의
만	진한	갈색으로	그려져	있음을
하며	인종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된	'유색	인종'	이라는	표현
백인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담고
로	또	다른	인종	차별의
				문제를
				나를
인	종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
한	이	우월	하다고	백인
형	성	될	수	있다.

- 01 ⑤ 02 ② 03 ④
 04 겨울잠에서 깬 후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다람쥐가 여위어 보였기 때문이다.
 05 ② 06 ③ 07 ②
 08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09 (나) - 어머니는 수다람쥐에게 다람쥐 본연의 습성을 가르치기 위해 암다람쥐를 데려온 것이다. 10 해설 참고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⑤

01 '나'가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다람쥐가 등장하지만 다람쥐를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②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③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어머니와 다람쥐 간의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④ '나'가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02 어머니는 고구마를 좋아하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에서 알 수 있다. ④ '괜찮다, 어서 먹으렴. ~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으렴.'에서 알 수 있다. ⑤ 어머니는 은연중에 다람쥐를 쓰다듬다가 다람쥐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봐 경계심을 가졌지만,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다람쥐를 보며 미안함을 느낀다.

03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 자연과 가까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에서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어머니가 서글픔을 느끼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며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③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마치 말뚝을 만난 듯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처음에 다람쥐에게 고구마를 주고, 오랜만에 나타난 다람쥐를 반기며 먹이를 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04 3월은 아직 다람쥐들이 배고픈 계절이고, 다람쥐가 겨울잠에서 깬 후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여위어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고구마를 던져 준 것이다.

05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물이 등장하지만 우화 소설은 아니다. 우화 소설은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띤다. ③ 이 글은 작가가 꾸며 낸 소설이다. ④ 작품 속 인물인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⑤ 시골의 어느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

06 초등학교 교장이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람쥐 기증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면장 집 철창 안에서 재롱을 부리는 다람쥐를 보고 눈물이 났다. ② (나)에서 어머니는 다람쥐가 다람쥐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자, 야생에서 자란 다람쥐를 만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라)의 '텔레비전에서는 돼지를 집 안에서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왔다. ~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중얼거렸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라)의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와 '아무리 사람이 야생 동물을 행복하게 해 줘도, 야생 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에서 알 수 있다.

07 어머니는 우연히 만난 다람쥐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한다.(가) → 다람쥐를 자식처럼 돌봐 주다 보니 다람쥐는 야생성을 잃게 되었고, 어머니가 열흘 정도 자리를 비우자 먹이를 구하지 못한 어미 다람쥐가 죽게 되었다.(다) → 어미를 잃고 고양이가 기른 새끼 다람쥐들은 자신을 고양이로 여겼다.(나) → 어머니는 야생 다람쥐를 새끼 다람쥐와 함께 살게 하였고 그 둘은 부부가 되어 새끼들을 낳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새끼들을 키워 보고 싶어 하자, 어머니는 다람쥐가 애완동물로 살게 되는 것이 과연 다람쥐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생각하게 되었다.(라)

09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양이의糞을 먹고 자란 다람쥐가 계속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자,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야생 다람쥐를 만나게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기>는 그 이후 야생 다람쥐를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와 슬독에서 함께 살게 한다는 내용이다.

10 모범 답안

어	머	니	는	다	람	쥐	를	야	생	동	물	로	생	각	
하	는	관	점	에	서	동	물	은	자	연	속	에	서	자	
유	름	게	살	아	야	행	복	하	다	고	생	각	한	다.	
반	면	,	사	람	들	은	다	람	쥐	를	애	완	동	물	로
생	각	하	는	관	점	에	서	다	람	쥐	를	키	워	보	고
싫	어	한	다.												

11 이 글의 주제는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에 대해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③ 야생 동물은 애완동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본성을 살려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 ④ 인간이 야생 동물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이 자연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⑤ 야생 동물은 자연 속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12 교장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여 교육용으로 다람쥐를 기증해 줄 것을 어머니에게 요구한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야생 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어머니는 동물은 야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조카는 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겼다. ④ 사람들은 야생 동물인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어 한다. ⑤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려 하는 사람들을 통해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13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람쥐는 야생에서 다람쥐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어머니는 고양이가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고양이는 학교를 떠나 야생에서 살아야 하므로 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길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④ 어머니는 배고픔을 겪던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다람쥐의 야생 본성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고양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⑤ 고양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심한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14 어머니는 야생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이 다람쥐의 천적도 아니지만 다람쥐는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다. ② 사람들이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다람쥐 새끼를 주지 않은 것이지, 다람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③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에 남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④ 정성을 다해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다.

15 ㉞는 어머니가 다람쥐와 인연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며, 야생의 동물은 야생의 환경에서 본연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다.

오답 해설 ㉞: 어머니는 지난 봄에 어미 다람쥐를 만났으며, 가을 수확 철이 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 ㉞: 어머니는 수다람쥐에게 야생 동물 본연의 습성을 가르치려고 야생 암다람쥐를 데려온 것이다. ㉞: 암다람쥐는 숲속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적응했으며, 수다람쥐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은 것이다. ㉞: 바람을 등지자 않으면 코를 이용하는 천적에게 자신의 냄새를 들켜지 않을 수 있다.

2 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098~101쪽

01 ㉜	02 ㉞	03 ㉞	04 ①
05 자주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	06 ㉞: 방점 ㉞: 성조		
07 ㉞	08 ㉜	09 ㉜	
10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	11 ④	12 ㉞	
13 ㉜	14 ①	15 해설 참고	

01 ‘세종어제훈민정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㉜). 또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언어생활의 현실(㉞)과, 세종 대왕이 이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㉞) 28글자(㉞)를 만들었음이 제시되어 있다.

02 중세 국어에서는 ‘·뿌·메’와 같이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달·아’는 ‘달라’라는 뜻이다. ② ‘스·못·디’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표기이다. ③ ‘시·려’는 ‘능히’라는 뜻이며, 이어 적기와는 관련이 없다. ④ ‘ங’은 세조 이후에 소실된 음운이다.

03 ‘어·린’은 ‘어리석은 → 나이가 적은’으로, ‘·노·미’는 ‘사람(보통의 의미)이 → 사람(낮춤의 의미)’으로, ‘어엿·비’는 ‘불쌍히 → 어여쁘게,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되었다.

04 ㉞은 ‘중국어’라는 의미로,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에’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 해설 ㉞: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㉞: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이는 어두 자음군이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㉞: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㉞: 중세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05 자주정신은 ‘나·랏:말쌈미中등國·꿔·에달·아~스못·디아·니홀·썩’에, 애민 정신은 ‘내·이·를爲·형·호·야:어엿·비너·겨’에, 창조 정신은 ‘·새·로·스·물여·뽕字·쫙·롤링·ㄱ노·니’에, 실용 정신은 ‘·사람:마·다:히·여~홍쌈락·미니·라’에 드러나 있다.

07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가 사용되었고(·호시·니),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가 사용되었다(느락·샤:일:파다).

오답 해설 ①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덧붙는 ‘ㅎ’ 종성 체언으로 ‘내ㅎ’이 사용되었다. ② 제장의 ‘古聖(고성)·이’의 ‘·이’는 현대 국어의 ‘와/과’와 같은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③ 주격 조사는 ‘이’ 계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생략되었다. ‘불·휘’는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④ ‘기·픈’, ‘보랏·매’ 등에서 이어 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08 이 글의 ‘꽃’을 보면 받침에 ‘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받침을 8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는 8종성법에서는 볼 수 없는 표기 방식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는 ‘·쁘·들’ 등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지만, 이 글에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이 글의 비교 부사격 조사는 ‘·이’지만, <보기>의 비교 부사격 조사는 ‘·에’이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방점 표기가 있다. ⑤ <보기>의 ‘·뿌·메(뿌--+음+-에)’ 등과 이 글의 ‘남·근(남+근)’ 등으로 볼 때 이 글과 <보기> 모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09 ㉞은 ‘맏으니’의 의미이다.

11 ㉠은 '출발(15세기) > 초발(15~17세기) > 촉발(17~18세기) > 촉설(18~19세기) > 삽설(19세기~현재)'로 변화하였다.

12 <보기>에서는 말을 삼가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다름이 일어났을 때의 말하기 태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에서 알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에서 알 수 있다.

13 '촌스럽다'에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시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인식이 깔려 있으므로 '세련되지 못하다' 또는 '어수룩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시골스럽다'도 시골에 대한 부정적 어감이 있다.

14 '달같'은 고유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태권도'는 한자어이다. ③ '어린이'는 고유어이다. ④ '배추'는 고유어이다. ⑤ '대화'는 한자어이다.

15 **모범 답안**

	첫	째	,		한	국	어	를		사	용	하	는		사	람	의		수
가	세	계	에	서	12	번	째	로	많	다	.				둘	째	,		
외	국	인	들	이	다	양	한		이	유	로			우	리	말	에		관
심	을	가	지	고	한	국	어	를	배	우	고			있	다	.			
셋	째	,		한	국	의	위	상	이	높	아	지	면	서		한	국		
어	에	대	한	인	식	이	제	고	되	었	다	.		넷	째	,			
해	외	명	사	들	이	한	글	의	우	수	성	을		극	찬	한			
다	.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 - ㉡ - ㉢ - ㉣	08 ①	09 ②	
10 ①	11 ④	12 ①	13 ⑤	14 ③
15 ①	16 ④	17 ⑤	18 ④	19 ⑤
20 ④	21 ③	22 ③	23 ③	24 ②
25 ③				

01 “동물들한테 정을 주면 못쓴다. ~ 그런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은 옛사람들의 생각으로, 다람쥐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정을 준 것을 후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어머니가 다람쥐 새끼를 본 후 경사라며 금줄을 거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한동안 보이지 않던 다람쥐가 다시 나타나 어머니를 새끼들이 있는 술독으로 이끈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다람쥐가 사라진 후 어머니가 자식들을 하나씩 서울로 보낼 때마다 흘리던 눈물을 보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2 어머니는 다람쥐가 보이지 않자 고양이나 개, 족제비, 담비, 부엉이, 올빼미 등 다람쥐의 천적에게 다람쥐가 잡아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다람쥐가 다시 나타난 후에야 어머니는 다람쥐가 새끼를 낳은 사실을 알게 된다. ⑤ 생략된 뒷부분에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을 때 다람쥐가 죽은 후에야 어머니가 깨달은 내용이다.

03 ㉠에서는 다람쥐가 사라지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람쥐에 대한 걱정과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고, ㉡에서는 다시 다람쥐를 만난 안도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 않으며, ㉡에서 다람쥐에게 측은함을 느끼고 있지도 않다. ③ ㉠에서는 자식들을 서울로 보냈을 때와 같은 눈물을 흘린 것이지,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에서 어머니는 다람쥐를 스스로 보낸 것도 아니다. ④ ㉠에서는 다람쥐가 보이지 않자 슬픔과 함께 다람쥐에게 정을 줬다는 후회도 했을 수 있으나, ㉡에서 그러한 후회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에서 어머니는 다시 돌아온 다람쥐를 보며 기쁨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에서 어머니는 다람쥐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

04 사회·문화적 가치는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말한다. 이 글의 주제는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 /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이므로, 자연에 대한 존중과 보존의 필요성을 사회·문화적 가치로 들 수 있다.

오답 해설 ⑤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해당한다.

05 이 글의 주제는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 /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오답 해설 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약한 야생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해당한다. ⑤ 동물이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행복함을 말하고 있을 뿐, 동물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사냥을 하거나 잡아먹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야생 다람쥐가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술독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적응했으며 고양이와 기른 수다람쥐와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수다람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아 암다람쥐의 야생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어머니가 어미 다람쥐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봄이었으므로, 가을 수확철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낸다. ㉡: 암다람쥐가 수다람쥐에게 말했음직한 내용을 서술자가 짐작하여 보여 준 것이다. ㉢: 다람쥐의 천적은 코를 이용하므로 바람을 이용하여 천적을 피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에게 의지하면 야생성을 잃게 되므로 다람쥐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08 ㉠은 ‘중국어’로 해석되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가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가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르썩’은 현대어 풀이 ‘-므로’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 ‘-니’는 현대어 풀이 ‘-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 ‘-이’는 현대어 풀이 ‘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 ‘을’은 현대어 풀이 ‘을’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09 ㄱ의 ‘어미틀’은 ‘어미’에 ‘틀’이, ㄴ의 ‘썩틀’은 ‘썩’에 ‘올’이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틀’과 ‘올’은 현대어 풀이에서 각각 목적격 조사 ‘를’과 ‘을’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ㄱ의 ‘羅睺羅(라후라)’는 ‘羅睺羅(라후라)’에 ‘-이’가, ㄴ의 ‘仙人(선인)’은 ‘仙人(선인)’에 ‘-이’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이’와 ‘이’는 현대어 풀이에서 각각 주격 조사 ‘가’와 ‘이’에 대응한다. ㉡ ㄴ의 ‘羅曇(구담)’은 ‘羅曇(구담)’에 ‘-이’가, ㄴ의 ‘南妮(남골)’은 ‘南妮(남골)’에 ‘-이’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이’와 ‘이’는 모두 현대어 풀이에서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한다. ㉢ ㄴ의 ‘深山(심산)’은 ‘深山(심산)’에 ‘-애’가, ㄴ의 ‘時節(시절)’은 ‘時節(시절)’에 ‘-애’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애’와 ‘애’는 현대어 풀이에서 모두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한다. ㉣ ㄴ의 ‘果實(과실)’은 ‘果實(과실)’에 ‘-와’가, ㄴ의 ‘病(병)’은 ‘病(병)’에 ‘-과’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와’와 ‘과’는 모두 현대어 풀이에서 조사 ‘과’에 대응한다. 또한 ㄴ의 ‘와’는 ‘果實(과실)’과 ‘를’을, ㄴ의 ‘과’는 ‘病(병)’과 ‘死(사)’를 이어 주고 있다.

10 ㉠: 현대어 풀이 ‘가겠습니다’를 통해 ㉠은 동사의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중세 국어 표현은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한 ‘가리이다’이다. ㉡: 현대어 풀이 ‘스승이시다’를 통해 ㉡은 ‘체언 + 이다’의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중세 국어 표현은 특정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은 ‘스스이시다’이다. ㉢: 현대어 풀이 ‘묻는다’를 통해 ㉢은 동사의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중세 국어 표현은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한 ‘묻느다’이다.

11 ‘가시니’는 어간 ‘가-’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것으로, 특수 어휘가 아니다.

오답 해설 ㉠ ‘쁘기’는 초성에 어두 자음군 ‘ㅃ’이 쓰였다. ㉡ ‘쁘니울’은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고, ‘지최톨’은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다. ㉢ ‘브리수방’의 ‘ㅅ, 방’은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이다. ㉣ ‘거름, 조차’는 ‘걸음, 좇아’를 이어 적은 것이다.

12 ㉠: ‘얻는 藥(약)이 (㉠)’은 현대어 풀이의 ‘무엇인가?’를 통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문 보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 ‘이 썩리 너희 (㉡)’은 ‘예’ 또는 ‘아니오’의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므로 의문 보조사 ‘가’를 사용해야 한다. ㉢: ‘엇데 일흔이 (㉢)’은 현대어 풀이의 ‘어찌’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야’라는 이름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의문 보조사 ‘오’를 사용해야 한다.

13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 ‘형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낯’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보다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해설 ㉠ ‘기·핀’은 어간의 받침 ‘피’를 어미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 ‘뵈·썩’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 ‘-톨’은 현대 국어의 ‘-를’과 형태가 다르다. ㉣ ‘-디·면’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 ‘ㅃ’이 사용되었다.

14 ‘-오-’는 어말 어미 앞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였다. 그런데 ㉡의 ‘-다-’는 ‘-더-’가 어말 어미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오-’와 ‘-더-’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오-’는 음성 모음 뒤에서 ‘-우-’로 나타났다. ㉡의 ‘-오-’는 ‘우-’의 음성 모음 뒤에서 ‘-우-’로 나타나고 있다. ㉢ ‘-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와 결합하면 ‘-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 ‘-노-’는 ‘-오-’가 ‘-느-’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 ‘-오-’는 ㉡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와 결합하여 ‘-노-’로 나타났고, ㉢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더-’와 결합하여 ‘-다-’로 나타났다. ㉣ ‘-오-’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 ㉡, ㉢ 각각의 주어를 확인하면 세 경우 모두 ‘-오-’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15 ㉠의 현대어 풀이가 ‘중국어’인 것으로 볼 때 조사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중세 국어에서 ‘어리다’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어리다’와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 ‘ㅁ’과 같이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자를 나란히 적었다. ㉣: ‘ㅎ’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가 있었다. ㉤: ‘썩 톨+이--+니라’를 ‘썩르·미니·라’로 표기한 것은 앞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에 옮겨 표기하는 방식이 활용된 것이다.

16 현대 국어의 ‘것은’과 비교할 때 ㉡은 앞 글자의 받침 ‘스’을 이어 적은 것에 해당한다.

17 제2장은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의 두 사례의 열거를 통해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된 미래가 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표면에 드러난 내용은 자연 현상에 국한되어 있으며,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이 대조되고 있지는 않다. 제125장은 천명을 받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영원무궁한 발전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어서 경천근민의 왕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강조하면서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언급하며 설의법을 통해 교훈적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이 역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제2장에서는 근원이 깊고 튼튼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과 같이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 제125장의 첫 행은 ‘-(으)시니’, 2행은 ‘-(으)리이다’, 3행은 ‘-습니까’로 서로 다른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제125장의 3행 ‘임금하’에서 이 글의 수신자(청자)가 후대의 임금됨을 알 수 있다. ㉣ 제125장은 ‘천세(千世)’, ‘누인개국(累仁開國)’, ‘복년(卜年)’, ‘성신(聖神)’, ‘경천근민(敬天勤民)’, ‘낙수(洛水)’와 같이 한자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제2장은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순우리말만을 구사하고 있다.

18 ‘강파(江波)’, ‘바람’이 자연물이고 ‘소정(小艇)’, ‘그물’이 인공물이기는 하지만, <보기 2>에서 이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다. ‘소정(小艇)’과 ‘그물’ 등의 인공물은 자연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화자의 강호한정의 내면적 감흥을 드러내기 위한 성격을 띠는 점에서 ‘강파(江波)’나 ‘바람’, ‘탁료계변(濁醪溪邊)’ 등의 자

연물과 유사하다. 또한 화자는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선비로서 자연을 즐기는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신하로서의 면모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나무'와 '물'은 튼튼한 근원을 지닌 존재로, 이를 통해 조선의 기틀이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조선의 왕업이 영원무궁할 것임을 송축하고 있다. ② 이 글의 '경천근민(敬天勤民)'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대함에 있어 늘 성실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왕들이 지켜야 하는 덕목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권직 수행을 목표로 하는 대부로서의 신하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정치적 관심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 ③ <보기 2>는 각 수의 종장에서 매번 '역군온(亦君恩)이샅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진행되어 오던 강호한 정서의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임을 드러낸 것으로, 신하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이 글의 '한강 북녘'은 조선의 새로운 수도로서의 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보기 2>의 '강호(江湖)'는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운 정서를 누릴 수 있는 개인적 삶의 공간인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역시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9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곧 지나치게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며, 말을 해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②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20 과거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보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1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어'는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결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이다.

22 (다)는 외래어의 특징을 설명하며 외래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외래어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가): 경준이 자신이 속한 의사 집단의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병어리 냉가슴'이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은 속담이지만, '병어리'나 '장님'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어휘에 해당한다.

23 '파스타'와 '가락국수'는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파스타'를 이미 국어에 존재하는 단어로 쓰기 위해서는 '가락국수'가 아닌 다른 말로 대체해야 한다.

오답 해설 ㉠: 전문 용어이므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 '장님'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냥집사'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가상 공간에서 일컫는 말로, '냥'은 가상 공간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냐옹'의 줄임말이다. ㉣: 바로 앞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24 '촌스럽다'에는 시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오답 해설 ① '귀머거리', '장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여의사', '남자 미용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⑤ '잡상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5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resembling a dashed line, spaced evenly down the page to provide a guide for writing.

